

2014 SUMMER Vol. 22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News

박물관풍경

風景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도:시 사이_ 도시를 듣다」

컴팩트마트시티는 국내 유일의 도시계획관이다. 도시 인천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눈에 조망하기 위해 많은 국내외 관람객들이 컴팩트마트시티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를 주제로 기획전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에 대하여 조금은 진지한 이야기들을 하려한다. 기획전시 <도:시 사이_ 도시를 듣다>는 도시를 주제로 작업하는 차기울, 김희연, ETC, 리금홍 작가의 작품들로 '도시'에 대한 각기 다른 작가적 시선과 메시지를 들여보고자 기획되었다.

글·최은영(컴팩트마트시티)

기획전시 <도:시 사이_ 도시를 듣다>는 프랑스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1901~1991)의 사상(思想)에 기대고 있다. 르페브르는 그의 저서『리듬분석』에서 “공간보다는 시간에 더 주의를 기울여 청중이 교향곡을 감상하듯 집, 길, 도시를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도시를 듣는다는 건 도시를 이루고 있는 사회의, 사람들의 리듬을 듣는 것이다. 리듬에는 좋은 리듬(조화리듬성)과 나쁜 리듬(부정리듬성)이 있는데 이 리듬들을 잘 파악하여 되도록이면 좋은 리듬들로 이루어진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도시(city)의 리듬' '음악' '7음계(도레미파솔라시)' '7음계의 시작과 끝에 있는 '도(do)와 '시(ti)' 다시 '도시(city, do:ti)' 그래서 <도:시 사이_ 도시를 듣다 City(do:ti) Space_ Listen to the City>라는 전시주제가 떠올랐다. 르페브르는 여러 리듬 중 음악적 리듬이 우리의 일상적 삶을 생생하게 드러내주면서 동시에 우리의 일상을 정화하고 치유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분석할 때 이 리듬분석이 새로운 시각과 통찰력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믿으며 우리사회가 강요하는 어긋나고 파열되는 부정리듬성에 대항해 잃어버린 시간, 빼앗긴 공간, 소외된 몸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의식적인 반복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리듬을 파악하고, 넘어서고, 변형시키며 창조적인 순환과 조화리듬성을 회복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눈과 귀를 열고 우리의 도시를 들어야 한다. 7음계의 구성으로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듯 우리도 우리의 온 감각을 깨워 매일 매일의 현실을 직시하며 더 조화로운 삶의 리듬(조화리듬성)을 도시 안에서 만들어 가야 한다.

도시(都市)는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지로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질서를 위해 정치(행정), 생존을 위해 경제, 그리고 삶의 질을 위해 문화와 예술이 발전하며 사회를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도시이다. 신이 자연을 만들었다면 사람은 도시를 만들었다. 그래서 도시는 역사의 산물이고, 인류가 오랜 역사를 거치며 완성한 문화가 총체적으로 녹아있는 장소가 바로 도시이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병폐들이 야기되어도 포기할 수 없는 삶이 도시 안에 존



김희연 <기다리다>

재하기에,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이건, 국제도시를 표방한 신생도시이건 도시 저마다의 독특한 문화가 태동하고 살아 숨 쉬고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사람중심의 활기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도시의 자연, 사람, 역사, 문화, 예술 등의 조화로운 공간으로 아름다운 삶의 악보를 완성해 가야 한다. 켜켜이 쌓인 역사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만들듯, 다양한 기후와 풍토를 가진 땅의 도시들이 다양한 삶의 악보로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도' '시' 그리고 그 사이의 음들로, 깨어있는 의식들이 만든 창조물들로, 도시를 들어야 한다.

도시의 기억을, 소외를, 욕망을 듣다 그리고 위로하다

작가 차기울은 도시를 고고학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파헤친다. 지층에 녹아 있는 시간의 켜들이 지난 시간을 응축하고 있기에 도시의 한 지점을 파 내려가면서, 시간을 역류하고 반추하면서 우리가 잊고 있는 진정한 삶의 모습과 가치를 발견하고자 한다. 인천은 작가가 대학시절부터 살던 곳으로 그 도 한 부분이었을 서민들의 삶과 다시 조우하기위해 주안동 1342-36번지를 약 3개월여에 걸쳐 발굴하였다. 역사 속에서 어떤 위치도 점유하지 못하고 잊혀져간 서민들의 삶과 그들이 감내해야했던 고뇌와 환희의 순간들이 미려하게나마 지층의 어떤 지점에 파편으로 묻혀있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발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을 기록한 결과물들을 전시하면서 발굴현장 과도 연계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 과정중심의 작가의 작업은 우리가 지나치는 소소한 삶의 '가치'를 성찰케 하는 것으로 화석처럼 묻혀있는 도시의 기억을 더듬고 다시 귀 기울여 듣고자 한다.

작가 김희연은 급변하는 현대도시에서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오래된, 쓰임이 다해 서서히 자취를 감추는 건축물들을 개인적 감수성을 더해 회화로 기록한다. 작품 속 폐건물들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삭제되어가는 도시 속 풍경 안에서 재인식과 낯설음 느끼게 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풍경을 잠시 생각하게 한다. 작가의 붓을 통해 재현된, 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폐역과 폐업한 공장입구, 그리고 폐주유소의 초현실적 공허를 통해 우리는 도시 속 소외된 풍경과 무덤덤하게 마주하게 된다.

진나라, 전보경, 이샘 3명의 작가로 구성된 일시적 합의 그룹 ETC(Enterprise of Temporary Consensus)는 도시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도시 한 곳에 머무르며 그 도시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하고 전 지구/지역에서 공통으로 일어나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문제와 연결하여 그 도시를 이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송도국제도시가 표방하고 있는 개발의 욕구와 계층상승에 대한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 〈멋진 신세계〉라는 타이틀로 기존 아파트 광고영상 꼴라주와 공사 중인 땅의 이미지들, 1970년대 신문에 등장하는 '도시=신사'의 광고이미지, 각종 아파트 광고문구들을 조합한 영상 등으로 도시의 욕망을 들려준다.

마지막으로, 도시인들의 작은 일상에 주목하여 사소하게 느껴져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사물들을 작품으로 풀어내는 작가 리금홍은 증식을 거듭하는 도시 안에서 마치 부유하면서 살고 있는, 기억과 감성, 감각을 설 새 없이 재편집 당하는 도시인들에게 작은 위로의 말을 건넨다. 높이 매달려 있는 49(불교에서 중유, 중음의 시간으로 생전의 업에 따라 다음 세상의 인연, 즉 생이 결정되는 기간 49일, 또는 행운을 상징하는 숫자 7×7)개의 액자로 만든 등(燈)에는 도시인들의 외롭고 지친 삶을 묘사한 문장들과 피안(彼岸) 깨달음, 이상의 세계)으로 가자는 반야심경이 함께 적혀 있어 무력한 도시인들의 삶을 위로한다.

우리의 도시, 과연 조화로운가?

산업화 이후 도시는 급속도로 팽창하여 지구 표면에서 도시가 차지하는 면적비율은 0.2%에 불과하지만 전체인구의 50% 이상이 도시 안에서 산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70%가 넘는다. 오늘날, 땅의 기억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논리로 인간소외(불평등), 환경파괴 등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인류의 궁극적 삶의 터전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권력과 자본, 정보가 도시를 장악하면서 도시민들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가 제거되어왔지만 도시는 사람들의 '삶' 없이는 존속되지 못한다. 도시는 '인간의 거주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우리는 그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도시의 본 모습을,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도시가 더 이상 파괴와 건설이 반복되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와 역사가 존중되는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전시는 묻는다. 우리의 도시가 간과하는 소소한 삶의 이야기, 배척하는 낯은 풍경, 도시적이라 규정지으려는 고층아파트의 생활 등이 과연 도시의 좋은 리듬일까? 그 도시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도시인들의 리듬은, 사회의 리듬은 과연 조화로운가? 그리고 바란다. 작품들의 메시지, 즉 잊혀진 기억들, 소외된 공간들, 상승에 대한 욕망들, 그리고 수동적 삶에 대한 위로, 위안 등과 마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리듬은 과연 건강하고 조화로운지 확장된 감각으로 들어보고 진단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Contents

2014 SUMMER Vol. 22

- 02 전시리뷰 「도:시사이」 도시를 듣다」 특별전
- 04 전시리뷰 「월미도, 기억 너머의 기억」 특별전
- 06 기획기사Ⅰ 인천의 근대미술
- 08 기획기사Ⅱ 인천의 근대미술 작가 이당 김은호
- 10 인천, 도시탐사 섬이 아닌 섬. 월미도
- 11 청소년기획 talk, talk! 달동네 벽화씨, 잘 지내나요?
- 12 학술조사·유물관리 박물관의 유물등록
- 14 박물관 소식 전시, 행사, 교육
- 16 소장유물 이용우 〈노안도(蘆雁圖)〉

COVER STORY

생각하는 사람

사람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어야 할 세상에서
세월호 참사의 충격은
온 나라를
분노와 참담한 슬픔의 고통 속에
빠지게 했다.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고,
똑같은 불행이 다시 찾아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잊지 않겠습니다〉
인간은 생각할 때만 존재한다



창간일 2009년 3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이명숙

기획·편집 전시교육부 이성용 김래영 / 자원봉사자 구자인혜 김명숙 정효숙 정경수

표지사진·글 조오다

제호 이태용

디자인·인쇄 은정문화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옥련동 525번지)

TEL. 032-440-6750 FAX. 032-440-8871

http://museum.incheon.go.kr / www.facebook.com/icmuseum

「월미도, 기억 너머의 기억」에 관한 기억

글·신은영(전시교육부)

조각난 기억들

월미도를 주제로 전시를 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우연히 보게 된 식민지기 신문 기사 때문이었다. 경성(京城)에 있는 학교에 다니던 한 남학생이 기생과 함께 월미도에 갔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는 단신이었다. ‘뭐 굳이 그런 일까지 단속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당시 월미도가 어떤 장소였는가 하는 소박한 호기심도 들었다.

기사를 검색하고, 사료를 찾고, 관련 자료들을 읽는 과정에서 월미도가 그저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섬이 아니라 근현대 동아시아사의 핵심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작은 섬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역사를 내장하고 있었던 월미도의 조각 나 있는 기억들과 역사를 모아 전시로 재구성함으로써 그 섬이 겪었던 역사의 운명을 전환시킬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기억의 재구성

동아시아의 핵심 현장이었던 만큼 월미도의 장소적 성격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다. 때문에 전시 구성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월미도의 역사가 스스로 자신의 시대를 매듭지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월미도의 역사를 그 장소성에 따라 크게 3부로 나누었다.

1부. 바람 타는 섬

1883-1910

1부에서는 한적한 행궁지였던 월미도가 인천항 개항을 계기로 제국주의 열강들이 조차 경쟁을 벌이는 각축장으로 변하고, 이 각축의 절정으로서의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월미도를 군사기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개항 전 인천은 한적한 어촌이었고, 월미도 또한 몇몇 어부들이 사는

섬에 불과했다. 이러한 월미도를 바꾸어 놓은 것은 일본 및 서구 열강에 의한 개항이었다. 월미도는 인천항의 교두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앞바다는 큰 배가 다닐 수 있을 만큼 수심도 깊었기 때문에, 조선을 강점하려는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월미도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요한 장소였다.

이 경쟁에 뛰어들 국가가 1890년대는 일본과 청, 1900년대에는 일본과 러시아였다. 전시에서는 월미도에 석탄창고를 건설하려는 열강들의 외교문서를 통해 이 조차 경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보여주었다. 또한 일본-러시아 간 각축의 절정으로서 월미도 앞바다에서 발발한 러일전쟁까지의 과정을 주한일본공사관 기록, 조선 정부 문서, 국내 신문 등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였다. 마침 우리 박물관에 러일전쟁 관련 유물들이 다량 남아있어 문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유물을 통해서도 그 시대를 가늠하게 할 수 있었다.

2부. 사랑의 섬

1910-1945

2부에서는 조선을 병합하여 월미도의 치안을 확보한 일제(日帝)가 월미도를 유락지로 개발하는 과정과 그 실태, 그리고 유락지로서의 월미도라는 장소에 품었던 조선인 청년들의 은밀한 꿈을 당시 소설과 사진엽서들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였다.

2부 전시는 두 측면에서 기획하였다. 하나는 월미도 유원지의 개발과 정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유원지에 대한 조선인의 경험과 기억이다. 1918년 인천부(仁川府)에서는 월미도를 풍치지구(風致地區)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교량을 건설하고 식림(植林)을 하는 등의 지반 공사를 거쳐, 1923년 설립된 월미도유원회사(月尾島遊園會社)가 조탕과 해수욕장, 용궁각, 호텔 등을 건설하였다. 그리하여 월미도는 이른바 ‘대경성(大京城)’을 배후로 한 일대 유락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한다.

전시실 전경



©조오다



인천항에서 바라본 월미도

이렇게 완성된 월미도는 유흥과 타락의 장소이자 뭔가 에로틱한 약속이 기대되고, 젊은 남녀의 밀회가 이루어지는 사랑의 섬의 표상이 되었다. 식민지기 조선에서 이러한 표상을 가진 장소는 주을온천, 배천온천 등 몇 군데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경성과 가까운 월미도가 단연 돋보였다. 이효석의 「주리야」(1933), 이광수의 「사랑」(1938), 한용운의 「박명」(1938-1939) 등은 이러한 월미도의 장소성을 잘 보여준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월미도는 조선인을 위한 장소는 아니었다. 윤치호를 비롯한 경성의 부유한 조선인들, 이국적인 것을 꿈꾸는 청년들과 지식인들이 월미도를 드나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월미도는 식민지에 설치되어 식민자 일본인들이 흥청대던 식민지 파라다이스였다.

3부. 불타는 섬

1945-1989

3부 ‘불타는 섬’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의 상륙 지점이었던 월미도의 상황과 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조명하려고 하였다.

한국전쟁 초반 낙동강 전선까지 물린 전세를 만회하기 위해 연합군이 타격 지점으로 삼은 곳이 인천으로, 이 작전이 이른바 「Operation Chromite」, 인천상륙작전이다. 이 작전을 통해 연합군은 대규모의 병력과 물자를 적의 대항을 극복하고 상륙시켜야 했는데, 직접적인 작전 문서량이 어마어마하다. 이번 전시에서는 두 가지 자료를 통해 당시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나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미국 국립공문서관 NARA에서 수집한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문서들이고, 다른 하나는 미 해병대의 월미도 상륙 작전에 동반한 Sgt. Frank C. Kerr 등의 사진 자료이다.

한편, 북한이 이 대규모 작전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닌 듯 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NARA에서 수집한 노획문서철에는 인천에 주둔하던 북한군 제107보연 참모부가 접수한 「상급문서철(上級文書綴)」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1950년 8월 28일 인천방어지구사령부를 전선지구경비사령부 직할로 재편제하고, 해안방어에 치중하라는 명령서가 남아 있었다. 아마도 연합군의 상륙을 알고는 있었지만 중과부적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은 떨어지는 포탄 속의 월미도에 있었던 인민군의 모습을 소설 「불타는 섬」(1952)과 영화 「월미도」(1981)에서, 죽음도 불사하고 섬을 사

수하고자 한 영웅들로 그려낸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군사적 목적의 재현에 불과할 것이다. 인천에 주둔하던 인민군이 1950년 9월에 고향으로 보낸 편지 -이 또한 미군에 의해 노획되었는데- 는 그들이 부모와 처자식, 그리고 가을걷이를 걱정하던 소박한 청년들이었음을 숨기지 못한다. 어서 전쟁이 끝나 고향에서 재회하자고 약속했지만, 아마도 이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을 것이다.

슬픈 오브제의 기억

전시하려는 주제가 중요하고 또 지금 시점에서 절실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시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오브제가 필요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여러 우연들이 겹쳐 만들어진 행운이 전시를 가능하게 했다.

첫 번째 행운은, 우리 박물관에 식민지기 인천부의 향토자료관에서 물려 받았던 러시아 함대 바리야크호와 코레이츠호 유물을 위시한 러일전쟁 관련 유물들이 대규모로 소장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 유물들이 없었다면 월미도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제국주의 각축 장소로서의 월미도는 지금처럼 재현될 수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 행운은 NARA 소장 문서와 사진들이었다. 여기에는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문서는 물론 중군 사진가의 월미도 상륙 작전 사진이 오롯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노획문서 속에는 인천에 주둔하던 북한 인민군의 개인 편지와 그 편지에 동봉했던 그들의 사진 수백장이 들어 있었다.

바리야크호와 코레이츠호의 침몰은 비극적인 것이었다. 죽음을 앞둔 북한 병사들이 고향의 부모와 아내, 그리고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가 전달되지 않은 것 또한 그들에게는 비극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러한 비극을 통해 그 비극을 만들어낸 비극적인 전쟁이 다시는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환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월미도는 슬픈 기억을 가진 섬이다. 이 기억을 미래 역사를 위한 힘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 충분한 애도와 함께,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상상이 필요할 것이다.

인천 근대미술의 기원

글·최열(미술평론가)



인천 땅은 오랜 옛 왕국의 수도였다. 고구려를 건국했던 여인 소서노(召西奴)가 큰 아들 비류(沸流)로 하여금 미추홀국(彌鄒忽國)을 건설하고 이 땅 인천에 도읍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땅은 형제인 온조(溫祚)의 나라 수도였던 지금의 서울과 대등한 도시였던 것이다. 그 뒤 고려시대에 칠대어향(七大御鄕)으로 왕조와 깊은 인연을 쌓아 경원부(慶源府)로 승격되었지만 조선 개국으로 말미암아 강동 당하여 인주(仁州)로 낮춰졌으며 다시 행정개편에 따라 이름을 바꾸어 인천(仁川)이 되었는데 오늘날의 그 이름이다.

인천은 중국대륙과 교역요충지였으며 병자호란 이후 강화도 방어를 위하여 진(鎭)을 설치함에 따라 군사요충지로 떠올랐다. 19세기에 들어 열강의 침략이 빈번하더니 드디어 1883년 개항 시장으로 변모하여 서양인은 물론 일본, 중국인들이 거주를 시작하고 또 서양식 건물이 들어서면서 국제항구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이렇게 보면 인천은 군사도시이자 경제도시였던 것인데, 그 재력을 기반으로 문화와 예술이 싹을 틔워 났을 것이지만 오늘날 그 흔적을 찾을 길이 없다. 심지어 개항 전후에도 서구미술 수용 같은 움직임이 전혀 포착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오백년 동안 중앙집권국가라는 틀에 따른 것으로 비단 인천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전국의 문제였다. 특히 한양과 가까운 인천의 경우는 한양과의 경제마저 없을 만큼 흡수당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문명전환기이자 중앙집권의 이완상황을 맞이하는 20세기에 이르러 지역을 거점으로 삼는 문화예술활동이 싹을 틔워 나갔고 미술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20세기 인천미술사의 여명

1890년 12월 핸리 새비지 랜더(Henry Savage Lander)라는 영국인 화가가 인천항을 통해 한양으로 올라가 3개월 동안 다양한 활동을 했다.¹⁾ 또한 1910년 3월 영국인 캠프(Kemp)도 여러 곳을 관광하면서 수채화를 그리다가 인천항을 통해 출

국했다.²⁾ 하지만 그들이 인천에서 활동을 했거나 인천을 소재로 작품을 제작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또한 그들은 귀국한 뒤 《고려 또는 조선》, 《만주 한국 러시아 터키인의 얼굴》과 같은 저술을 간행하면서 조선을 소재로 한 작품을 도판으로 게재했지만 인천을 그린 작품은 없다. 그들 외래인에게 인천은 그저 스쳐가는 항구일 뿐이었던 게다.

인천 서화의 요람은 김병훈(金炳勳)의 의성사숙(意誠私塾)이다. 1910년 강제합병을 전후하여 서예와 사군자, 수묵채색화를 교육하였고 이를 거점으로 문하의 여성 서화가 조벽하(趙璧河), 박정자(朴貞子)가 배출되었다. 더불어 제법 뛰어나 이름을 날리던 정규성(丁奎成), 김종택(金鍾澤), 최봉래(崔鳳來)와 같은 이들의 이름이 남아있으며 또한 인천의 기생화가로 오향선(吳香仙)과 같은 인물도 그 이름을 떨쳤다.³⁾

1921년 12월 엽월청년회, 한용청년회가 서화전람회를, 1923년 2월 인천유지들이 양화연구회를 조직하고 유화 교육 및 전람회를, 1924년 3월에는 인천에 거주하는 일본인 화가단체인 하양회(河洋會) 주최 전람회를 열었다. 또한 1923년 인천공립상업학교에 도화습자 교사로 일본인 핫토리 에이이치(服部英一)가 부임하였는데 당시 학교에서 미술교육이 이뤄지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일이다.⁴⁾

이와같이 인천지역의 미술활동은 기록만 남아있을 뿐이지만 바로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기에 김은호(金殷鎬 1892-1979)나 고유섭(高裕燮 1905-1944)같은 청년들이 일찍이 상경하여 미술가, 미술사학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22년 제1회 조선미전에 <미인승무도(美人僧舞圖)>로 4등에 오른 김은호는 다음 해 1923년 3월 인천 유지들의 초대로 인천에서 서화전을 열었다. 바로 그 직전 2월 강화서화연구회가 출범하여 서화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1925년 2월에는 서화구락부로 개칭하고 조직을 확대하였다.⁵⁾ 특히 이 서화구락부는 '조선인들만으로 구성된 민족주의 시각의 성격을 지닌 단체'⁶⁾라는 점에서

1910년 무렵의 의성사숙 이래 인천 미술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상징성을 지니는 것이었다.

인천근대미술사의 기원

1935년 제14회 조선미전 서양화부에 김영건(金永健 1915-1976)이 처음으로 입선했다.⁷⁾ 김영건의 입선은 인천 미술사의 중요한 계기였다. 인천에 거주하는 인천 출신 화가로서도 최초이지만 유희분야에서 인천인 최초의 조선미전 입선이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김영건의 활동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영건은 1937년에 윤규병(尹奎炳), 김진태(金鎭泰)를 비롯해 모두 6명을 모아 육인회를 조직했다. 이어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인천공회당에서 제1회 작품전람회를 개최했는데 “예술 인천의 발전을 기대하는 의미의 총입장자 2천여명에 달하는 성황으로 일반의 호평이 높았다고 한다”⁸⁾는 당시 언론의 보도로 미루어 당시 육인회전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미술사건이었던 것이다. 비로소 개항장 인천이 서양미술을 수용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김영건 이후 인천인으로 김종식(金鍾植), 이무영(李茂榮), 김정환(金鼎煥), 김정태(金政泰)가 연이어 입선하여 유채화단이 활기를 띄었지만 그들과 육인회의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알 수 없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다만 이무영이 1940년대 초 낙랑다방을 개업하였고 이 공간이 인천화단의 거점⁹⁾으로 역할을 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재인천 화가들만이 아니라 이경성, 조규봉, 김순배와 같은 동경유학 인천미술인의 근거지였음은 그 시절의 분위기를 충분히 알려준다. 육인회 그리고 낙랑다방을 거점으로 삼은 인천화가들은 해방 이후는 물론, 전후 인천 미술계의 중추를 담당하면서 오늘의 인천미술계를 만들어나갔다.

이러한 인천근대미술의 역사를 탐색하는데 가장 큰 장벽은 당시 작품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1920년 2월 인천상공회의소에

서 개인전을 연 평양출신의 화가 김우범(金禹範)¹⁰⁾이나 1923년 3월 인천에서 서화전을 개최한 인천출신의 김은호, 4월에 인천 공회당에서 4인전을 개최한 개성출신 황종하(黃宗河), 황경하(黃敬河), 황성하(黃成河), 황용하(黃庸河) 형제 등의 작품을 통해 그 경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김우범의 <우후산수(雨後山水)>나 <매(梅)>와 같은 작품은 당대 가장 보편화된 산수, 사군자 양식으로 1910년대 의성사숙을 요람으로 하는 인천미술의 작품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김은호의 <연당미인(蓮塘美人)>과 같은 인물화풍도 인천화단에 유입되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리고 유채화 분야에서는 김영건의 1935년 작품 <풍경>A, B가 도판으로 남아 있다. 김영건이 살고 있는 인천항구 풍경을 소재로 삼은 작품으로 활달하고 대담한 붓질이 도드라진 인상과 화풍을 과시하고 있다. 1938년의 <풍경>도 비슷하지만 보다 더 강고한 구성력을 드러낸다. 특히 김영건이 1968년에 그린 <우물가>는 인상파로부터 벗어나 선묘와 색채를 활달하게 운영하는 자유로운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시대의 변화를 알 수 있게 해준다.

20세기에 이르러 지역 미술계를 형성해 나간 역사는 비단 인천만이 아니다. 특히 지방 자치시대가 활짝 열린 21세기의 지역 미술계는 매우 방대하고 견고하다. 그러나 급격히 성장한 인천의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미약해 보인다. 인천시립미술관 하나 없으니 말이다. 왕국의 수도로 시작하는데 군사, 경제도시였으며 개항도시라는 그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아예 없었거나 있다고 해도 저 20세기 근대미술처럼 빈약하기 그지 없었던 미술, 미술인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말이다.



- 1 김우범, <우후산수(雨後山水)>, 수묵 담채, 1923, 제2회 조선미전 입선
- 2 김은호, <연당미인(蓮塘美人)>, 51x143cm, 비단에 채색, 1921, 개인소장
- 3 김영건 <풍경>, 유채, 1938, 제17회 조선미전 입선
- 4 김영건 <우물가>, 35x24cm, 유채, 1968, 개인소장
- 5 <제1회 오소회전>, 은상다방 1969년 4월 왼쪽부터 김영건, 우문국, 박응창, 윤갑로 (출전: <계간미술>32호)

- 1) 최열, <19세기말 20세기초의 미술>,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1998, 87쪽
- 2) 최열, <1910년대의 미술>,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1998, 114쪽
- 3) 노재우, <미술>, <인천개항 100년사>, 인천직할시, 1983, 1376-7쪽
- 4) 인천을 거점으로 활동한 일본인 미술가들에 대해서는 박석태의 <인천근대화단의 형성>(<인천근현대문화 예술사연구>, 인천문화재단, 2009)을 참고할 것
- 5) <강화서화구락부>, <조선일보>, 1925, 2, 3
- 6) 박석태, <인천근대화단의 형성>, <인천근현대문화 예술사연구>, 인천문화재단, 2009, 300쪽
- 7) 인천출신 화가 이월성의 아버지 이준실(李俊實)이 1931년 제10회 조선미전 입선을 한 사실을 인천 조선인 최초의 입선이라는 기록도 있지만 이준실이 네 차례 입선하는 동안 그의 주소지는 모두 함경북도 경성과 평양이었으므로 인천과 무관한 일이다.
- 8) <육인시유희회전 호평>, <동아일보>, 1937, 11, 5
- 9) 김인환, <인천화가들의 소박한 꿈과 추억>, <계간미술> 32호, 1984년 겨울호 92쪽
- 10) <석하 김우범씨의 서화전 개최>, <매일신보>, 1920, 2, 7

근·현대 한국 채색화를 이끈 이당 김은호

글·최경현(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홍익대학교 겸임교수)

1920년대 한국 화단은 서화미술회 강습소를 통해 배출된 1세대 동양화가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새로 도입된 근대 미술제도인 전람회는 이들에 계 근대적 화풍의 모색을 적극 요구하였다. 이때 이상범, 노수현, 이용우 등 대부분의 화가들은 주변의 실경을 그리는 수묵산수화에 경도되었지만, 이당(以堂) 김은호(金殷鎬 1892-1979)는 신일본화의 영향을 받아 미인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채색화의 영역을 넓혀 갔다.

서화미술회 입학과 초상화가로서의 명성



김은호는 1912년 인천에서 서울로 옮겨와 인쇄소 직공, 도장파는 일, 측량기사 조수 등을 거치며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 같은 교회 장로가 경영하는 영풍서관(永豊書館)에서 필사를 하고 있었다. 이때 우연히 들린 김교성과 현재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즉석에서 써준 추천서는 김은호가 화가의 길로



접어드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1912년 8월 서화미술회 강습소의 화과(畵科) 2기생이 된 김은호의 천부적인 세필화(細筆畵)를 지켜본 안중식은 '내림그림'이라 칭찬하였고, 왕실 측근이 순종의 사진을 모사케 하여 궁중에 소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이처럼 학생 신분으로 어용화사가 된 그의 재주가 알려지면서 주문이 쇄도하였고, 김은호는 21세의 젊은 나이에 초상화가로 화단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서화미술회를 졸업하고 의뢰받았다가 중단된 <순종황제어진도>를 1916년 완성하였고(도 1), 이를 계기로 1928년 <순종어진도>를 그리면서 역대 어진 5위(位)를 모사한

마지막 어용화사로서 당대 최고의 초상화가라는 명예를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서화미술회 다른 졸업생들과 마찬가지로 김은호는 전통화단의 마지막 계승자인 안중식의 화풍을 익혀 고답적인 산수화(도 2) 뿐만 아니라 도석 인물화에서도 상당한 실력을 발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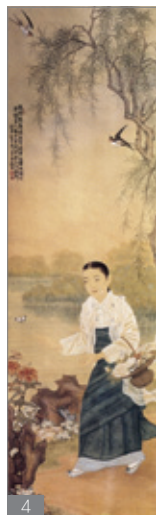
왕성한 창작활동과 미인화의 개척



1915년 5월 서화미술회를 졸업한 24세의 김은

호는 초상화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였다. 같은해 동학 교주의 초상화를 그렸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공관에서 개최된 전람회와 경복궁에서 열린 조선물산공진회에 <승무도>와 <조선의 가정도>를 각각 출품하며 미인화와 풍속인물화로 영역을 확대하였다. 더불어 1920년에는 3년 전 화재로 전소된 창덕궁의 주요 전각을 개축하고 벽화를 그리는 사업에 오일영, 이용우, 김규진, 이상범, 노수현과 함께 참여하였다. 이때 김은호는 왕비 침실인 대조전의 서벽에 <백학도>를 단독으로 그렸는데, 정교한 필치와 빼어난 색채감각에서 스승 안중식의 궁중 장식화 전통을 충실하게 계승하였음을 보여준다(도 3). 1921년 한국 최초의 미술가 모임인 서화협회의 제1회 전람회에 <축첩미인도>와 <애련미인도>(개인)를 출품하였다. 이들 미인화는 배

경에서 중국 사녀화(仕女畵)의 전통이 보이지만, 한국적 여성의 사실적 표현과 색채에서 근대적 변화를 보여준다(도 4). 그리고 1922년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에는 <미인승무도>를, 1923년 제3회 서화협회전에는 <응사도(凝思圖)>(개인)를 잇달아 출품하며 새로운 미인화의 영역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부상하였다. 특히 <응사도>는 구두에 개량 한복을 입은 신여성(新女性)이 계단을 오르다 고개를 돌려 꽃을 바라보는 자세와 배경의 아련한 표현 등에서 신일본화의 영향을 보여준다. 이는 김은호가 초상화의 대가라는 칭송에 머물지 않고 전람회라는 근대의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선구자적으로 미인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창작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유학 이후 개성적 인물화법 완성

이용문의 후원으로 1925년 변관식과 함께 떠난 3년간의 일본 유학 시기에도 김은호는 동경미술학교에서 청강을 하고, 일본화가 유키 소메이(結城素明)에게 개인 교습을 받으며 일본화풍을 적극 받아들였다. 이는 1926년 제7회 제전(帝展)과 1927년 제8회 제전에 잇달아 <탄금도(彈琴圖)>와 <경성춘교도(京城春郊)



圖)》를
출 품 해
입 선 한
사 실 을
통 해 서
도 엿볼
수 있다.
또한 유
학 중이
던 1927

년 제6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한 〈간성도(看星圖)〉(리움)는 골패로 하루 운세를 점치는 한국 기녀를 소재로 한 것과 구도, 표현기법 등에서 일본화법의 심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일본화풍은 1930년대 중반 김은호가 자신의 개성적 인물화법을 완성하는 중요한 구간이 되었으며, 1939년 호남은행장 현부호 등의 요청으로 제작한 〈춘향도〉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도 5). 특히 이 작품은 기녀인 김명애를 모델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한복을 고증하여 단아한 현실적인 여성상을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결국 김은호는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자신의 개성적 인물화법을 모색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해방 이후 역사 인물화가로 주목받는 밑거름이 되었다.

낙청현과 후소회를 통한 채색화의 확산

1930년부터 조선미술전람회를 잠시 외면한 김은호는 자신의 화실인 낙청현(絡靑軒)에서 후학 양성에 전념하였고, 1930년대 중반부터 백운문·김기창·장우성·이윤택·한유동 등이 조선미술전람회 동양화부에 대거 입선하였다. 이로 인해 김은호 계열의 채색인물화는 이상범 계열의 수묵산수화와 함께 관전의 주요한 화풍(官展畫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1936년 낙청현 출신 화가들이 후소회(後素會)를 결성하고 해마다 동문전을 개최하면서 채색화의 전통이 현대 화단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밖에 중일전쟁 직후인 1937년 11월 일본을 지원하는 애국금자회의 활동상을 〈금차봉납도(金鈔奉納圖)〉로 제작하였고, 태평양전쟁 중에도 친일미술 작품을 심사하거나 국방기금 마련 전람회 등에 여러 차례 출품하였다. 이

러한 일련의 친일활동은 김은호가 해방 이후 전개된 미술계의 주요 복구 사업에서 배제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해방 이후 역사 인물화가로 미술계의 중심에 복귀

김은호는 해방과 더불어 친일파로 분류되며 미술계에서의 활동이 제한되었던 1950년 제작 의뢰를 받아 〈이충무공초상도〉를 완성하였다(도 6). 이 작품은 1939년 〈춘향도〉를 제작할 때처럼 역사학계의 고증을 거쳐 입상의 무장본(武裝本)과 좌상의 모대본(帽帶本) 2점을 그렸는데, 이충무공의 단아한 얼굴표정은 조선 후기의 사대부상을 연상시키며 새로운 역사 인물화의 구간을 제시하였다. 이는 김은호가 미인화가에서 역사 인물화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논개·신사임당·이이·안중근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모습을 복원하는 인물화가로 화단의 중심에 복귀하였다. 이러한 창작활동과 후진 양성의 공로를 인정받아 1962년 문화 훈장 대통령상 등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6대화가에 포함되는 영예를 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색화가 김은호는 1979년 사망 이후 일제강점기의 활동이 문제가 되어 폄하를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1920년대 초반 산수화 중심의 수묵화가 대세를 이루었던 화단에 혜성처럼 나타나 채색화의 전통을 부활시키고, 후학 양성을 통해 현대 화단으로 확산한 그의 발자취는 한국미술사에서 단연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화미술회 강습소의 학생시절 이미 초상화가로 명성을 얻었지만, 근대 미술제도인 전람회의 입선을 위해 일본화풍을 수용한 미인화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해방 이후에는 역사적 인물의 모습을 복원하는 역사 인물화가로 거듭난 것은 현실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변함없이 자신의 창작세계에 몰입했던 화가로서의 열정적인 행보만은 미술사적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도판설명

- 1 김은호, 〈순종황제어진도〉 초본, 1923년, 유지에 수묵, 59.7×45.5cm, 국립현대미술관(1916년 완성된 어진은 대원수군복 차림의 정면반신상이었으며, 왕비 윤씨의 내전 겸 침전인 창덕궁 대조전에 걸려 있다가 1917년 소실되었다. 이것은 1915-1916년 사이에 완성된 초본을 근간으로 1923년 다시 그려진 것으로 보이며, 또 다른 순종의 초본이 고려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2 김은호, 〈산수도〉 2폭 병풍, 1918년, 비단에 채색, 각각 152×52.5cm, 국립고궁박물관(서화미술화 강습소에서 김은호가 안중숙에게 전통 산수화법을 배웠고, 이 방면에서도 재능이 탁월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 3 김은호, 〈백학도(白鶴圖)〉, 1920년, 벽화(비단에 채색), 197×57.9cm, 창덕궁 대조전(대조전은 순종비의 내전 겸 침실이며, 동벽의 〈봉황도〉는 오일영과 이응우가 합작으로 그렸다. 이처럼 조선 말기의 전통을 계승한 궁중 장식화를 그렸다는 것은 안중숙과 조석진 등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 4 김은호, 〈축점미인도(逐蝶美人圖)〉, 1921년, 비단에 채색, 138×42cm, 개인(1921년 개최된 제1회 서화협화전에 〈애련미인도(愛蓮美人圖)〉와 함께 출품되었고, 당시 인기가 높아 300원에 판매되었다)
- 5 김은호, 〈춘향도〉, 1960년, 비단에 채색, 160×80cm, 남원 춘향사당(당시 신문에 '조선의 모나리자'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1960년 한국전쟁 때 파손되어 1960년 동일한 초본에 의해 다시 그려진 것이다)
- 5-1 권번 기녀 김명애(金明愛)
- 6 김은호, 〈이충무공초상도〉, 1962년, 비단에 채색, 해남 우수영(1960년 고증을 거쳐 완성한 2점 가운데 모대본(帽帶本)이며, 순천 충무사에 봉안되었다가 화재로 소실되어 1962년 다시 제작된 것이다)

섬이 아닌 섬 ‘월미도’

글·배성수(전시교육부)

인천 제물포와 좁은 수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던 작은 섬 월미도는 1906년 2월 ‘섬이 아닌 섬’이 되었다.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소월미도에 하륙장(下陸場)을, 월미도에 군수고(軍需庫)를 설치하는 한편, 인천역에서 월미도와 소월미도를 잇는 군용철교 건설을 계획하였다. 월미도를 군사기지화 하여 전쟁에 필요한 군수품을 러시아와의 전선(戰線)이 형성되어 있던 만주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함이었다. 돌을 바다에 메우고 나무로 다리를 세운 목조 철교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준공을 본 이 철교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였고, 교각 주위로 토사가 쌓여 선박운항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결국 1911년 철거되었다.

다시 섬이 된 월미도가 제방도로로 인천과 연결되는 것은 1922년 4월이었다. 당초 군용철교가 놓였던 인천역 북쪽 해안에서 월미도 동쪽 해안까지 약 1km의 석축제방이 완공되었던 것이다. 이 제방의 위로 도로를 두어 당시 월미도에 조성되고 있던 조탕 등 유원시설과 인천

역을 연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듬해 월미도 유원지가 조성되자 인천역과 월미도 사이에는 ‘승합차’라고 불리던 셔틀버스가 운행되었다.

제방도로가 완공되자 도로 양쪽의 바다를 매립하여 다양한 산업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우선 가장 먼저 들어선 산업시설은 일본제분주식회사 인천공장이다. 1896년 도쿄에서 창립하여 지금까지도 일본 제분업계 2위의 사세(社勢)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제분은 한일병합 이후 조선에 진출하여 경성에 지점을 두었다. 조선과 만주로의 밀가루 공급을 독점하기 위하여 조선에서 직접 밀가루를 생산할 수 있는 제분공장이 필요하였는데 인천을 비롯한 조선 서해안의 항구가 그 후보지로 부각되었다. 일본과 만주를 잇는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원료와 완제품의 공급과 수송이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1925년 1월 일본제분주식회사에서는 인천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5월 측량을 거쳐 인천역 서쪽 월미도 축제로도 좌측 해면을 공

장부지로 선정하였다. 그 해 8월 8일 매립공사에 들어가 1927년 7월 8일 준공을 보았다. 이후 공장건설을 목전에 두고 있던 즈음 일청제분(日淸製粉)과의 통합에 실패하면서 경영이 악화되어 공장건설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경영악화로 인해 연기되었던 공장건설은 1935년 다시 시작되어 11월 콘크리트조의 5층 건물이 완공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서울의 이한원(李漢瑄)을 대표로 한 관리위원회가 운영하면서 회사의 명칭을 대한제분으로 변경하였다. 6.25전쟁이 끝날 무렵인 1952년 11월 다시 창업하였는데 6.25전쟁 이후 밀가루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제분산업도 나날이 변창하였고, 기존 공장부지 인근의 바다를 추가로 매립하여 공장을 확장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월미도 제방도로의 좌우를 모두 매립하여 산업시설을 유치하고자 하였다. 이 부지에는 1970년 대성목재 월미도공장이, 1979년 대한제당 비료공장이 들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영국영사관에서 바라본 월미도 군용철도



1926년 일본 제분회사 매립지



1930년대의 대한제분



1954년 대한제분 광고

talk, talk!

달동네 벽화씨, 잘 지내나요?

2기 청소년기자·전민제, 정현경, 임형진, 홍주희, 한승택



십정동 상정초등학교 뒤편에는 벽화로 채워진 달동네가 있다. 이 일대는 1960~70년대 서울과 인천의 철거지역 주민들과 인근 공단의 노동자들이 옮겨와 야산자락을 개간해 형성한 전형적인 달동네다. 작은 동네지만 90년대 중반까지 지신밭이나 단오제 등 마을공동체 문화가 존재했으며, 80년 중반부터 해님놀이방, 해님공부방과 같은 지역 사회 공동시설도 발전했다. 하지만 주거 건물들이 너무 노후해져서 2007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재개발을 앞두고 있으나 자꾸만 지연되어서 지금까지도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을 벽화를 그리는 것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만 해도 십정동 달동네는 곧 사라질 법한 마을이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벽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마을에 활력이 살아났다. 재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마을문화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현재 십정동 달동네의 많은 벽화들이 훼손되어가고 있고, 유지와 보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청소년 기자단이 답사장소로 십정동을 선택한 것은 벽화로 채워진 달동네의 성공사례로 십정동을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십정동의 벽화들이 생각보다 많은 훼손을 겪고 있음을 보고나니 청소년 기자단의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밑의 내용은 청소년 기자단들 중 세 기자의 감상문으로, 답사 직전에 쓴 감상문과 답사 당일 쓴 감상문, 답사 이후에 쓴 감상문이다.

사전조사 이곳 십정동 달동네는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작은 동네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이루어진 철거 대신해 지금은 따뜻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예쁜 벽화마을이 되었다. 가파르고 복잡한 골목 골목에 그려진 벽화들은 달동네를 올라가는 사람들의 힘든 마음을 가뿐히 털어 내어 주고, 예쁘고 귀여운 그림들로 마을 분위기를까지 저절로 밝게 해 줄 것 같았다. 게다가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촬영장소이기까지 하다니 인천 부평의 명소로 이만한 곳도 없지 않을까? 또 벽화는 이곳저곳에 다 칠해져있는 게 아니라, 열우물을 중심으로 모여 있어 하나의 스토리로서 의미도 잘

전달되고 시선도 잘 집중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십정동 달동네 벽화를 조사하면서 인천에 살면서 이런 멋진 곳을 진짜 몰랐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고 이번 시험이 끝나면 꼭 한번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달동네 지역은 건물이 노후해서 수리하거나 개발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다. 따라서 벽화를 그리는 것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정말 힘들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달동네에 벽화를 그리는 것은 재개발 지역에 희망을 가져다주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벽화가 시간이 지나 훼손되더라도, 벽화를 통해 동네 사람들이 소통하고 동네 살리기에 희망을 가지게 된다면 벽화를 통해 다른 방식의 달동네 살리기도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시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장조사 현장조사를 하기 전 십정동 벽화마을이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배경으로 나왔던 곳이라고 해서 더 관심이 갔으며, 더 열심히, 자세히 보려했었다. 영화에서 얼핏 나왔을 때는 무심코 넘어갔지만, 막상 (영화의 배경이 된) 벽화를 실제로 본다고 하니 궁금한 마음에 설레었다. 역시나 마을 입구까지 올라가는 길에는 즐거운 분위기가 가득했다. 하지만 곧바로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마을 살리기'라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대학생들이 손수 그려 만든 벽화는 시간이 지난 지금, 원래 의도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다. 여기저기 뜯어진 벽, 비와 햇빛에 변색된 벽화들... 모든 벽화들이 다 망가진 것은 아니지만 적잖은 벽화들의 훼손이 오히려 마을을 흉측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았다. 한 번 만들어진 것은 어떤 것이라도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특히 벽화는 벽에다가 덧대어 그리는 것이라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자들의 꾸준한 관리, 그리고 빛과 비에 강한 물감 사용 등 유지 보수만 잘 이루어진다면 벽화그리기를 통한 마을 살리기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현장조사와 사진 제공 및 디렉터 달동네하면 사진으로 또는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한 것이 다였다. 조금 가난해도 밝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곳이라 생각

했다. 그곳에서 보는 저녁노을은 한 폭의 그림과 같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가보니 아니었다. 아무도 없고 좁은 골목길과 개들이 짖는 소리 때문인지 분위기가 오히려 음산했다. 마을 입구 쪽은 벽화가 잘 조성되어있어 알록달록하고 환한 분위기를 풍겼지만, 마을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색이 벗겨지고 금이 간 벽화들이 나타났고, 그 탓인지 황폐한 분위기가 강해졌다. 저녁 시간이 좀 지나면 곧바로 음산해지는 동네 분위기 때문에 섬뜩함도 조금 느꼈다. 그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벽화마저도 관리가 되지 않아 흉하게 되었고 깊이 들어갈수록 찾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어 버린 마을 벽화... 마을의 분위기 조성은 목적으로 시작한 벽화사업이 오히려 관리가 되지 않아 역효과를 내는 것 같다. 목적은 물론 좋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다면 벽화사업도 조금은 고민해볼 사업인 것 같다. 앞으로는 좀 더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등장하여 재개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

이 기사 내용은 청소년들이 십정동 달동네 벽화를 조사하고 답사하면서 직관적으로 보고 느낀 것이다. 공공미술이라는 명목하에 전국 각지의 수많은 동네와 골목에 이런 벽화들과 작품들이 그려지고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려지고 설치되고 난 뒤에 그것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 자원봉사자나 문화예술단체는 많지 않다. 낙후된 동네, 버려진 동네, 없어질 동네에 공공미술로 인해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 언론과 정부의 관심을 받아 되살아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공공미술을 통해 동네,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골목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사이에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아닐까? 진정한 공공미술, 벽화의 의미를 청소년기자들의 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박물관의 유물등록

글·윤현진, 이정은, 김소영(유물관리부)

유물관리부 사업으로 지난 호 소식지(Vol.21)에서 소개한 유물구입에 이어 이번에는 입수된 유물을 박물관에서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해 소개하겠다. 구입이나 기증, 수집, 이관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박물관에 입수된 유물이 영구적으로 보관되고 전시 등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물을 등록하는 절차와 방법은 박물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유물관리부에서는 마킹(marking), 유물조사 및 유물관리 전산프로그램 입력, 촬영, 포장 및 격납의 순서로 유물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1 단계 마킹

마킹이란 말 그대로 유물에 표시를 하는 작업으로, 일련번호를 유물에 표시하기 때문에 넘버링(numbering)이라고도 한다. 유물관리부에서는 유물번호를 소장유물과 참고자료로 구분하여 부여하고 있는데, 2013년 9월까지 소장유물 번호는 6450번, 참고자료는 576번까지 부여하였다. 마킹은 유물의 재질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류는 연필로 마킹을 하는데, 서적의 경우 마지막장 뒷면 하단 귀퉁이에, 낱장의 경우 뒷면 오른쪽 하단 귀퉁이에 약 5mm 내외의 크기로 번호를 적어 넣는다. 직물의 경우에는 번호

를 적어 넣은 종이 꼬리표에 실을 꿰고 그것을 다시 직물의 울 사이를 통과시켜 매단다. 그 외 토기, 도자, 유리, 목재 유물 등은 물감으로 마킹을 하는데, 유물에 물감이 흡수되지 않도록 투명 코팅제를 한 번 바르고, 그 위에 물감으로 마킹을 한 후, 물감이 지워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코팅제를 덧바른다. 마킹의 위치는 토기나 도자의 경우 바닥에, 그 외의 유물은 전시 시 잘 보이지 않지만 번호를 발견하기에는 용이한 곳으로 한다.



①



②



③

- ① 지류 마킹
- ② 직물 마킹
- ③ 도자 마킹

2 단계 유물조사 및 유물관리 전산 프로그램 입력

유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마킹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유물조사 작업을 시작한다. 유물조사는 명칭을 부여하는 작업, 실측, 외형의 특징을 조사하는 표면적인 조사와 유물의 시대와 생성배경, 의의 등을 조사하는 심화된 것으로 구분된다. 유물관리부에서는 조사한 내용을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이라는 유물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은 국내 박물관의 유물관리에 표준화를 기하기 위하여 2000년대 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배포한 프로그램으로 다수의 박물관이 이 프로그램으로 유물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유물은 유형별로 다른 방식으로 실측된다. 낱장의 지류는 가로와 세로로, 서적은 가로와 세로와 두께로, 도자는 높이와 밑바닥 지름과 주둥이 지름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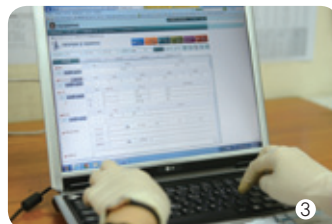
로, 기타 부정형의 것들은 폭과 길이와 높이 등으로 실측한다. 실측 후에는 유물의 외형적인 특징과 손상 정도를 조사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유물의 시대 파악과 의의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시대와 유형과 언어가 각기 다른 유물들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작업이다. 유물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서적과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렇게 조사된 내용은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입력된다.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서는 재질, 용도, 키워드 등으로 유물 검색이 가능하므로, 유물이 전시나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지는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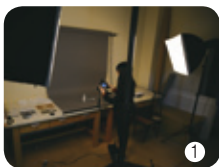
- ① 유물 실측
- ② 유물 실측
- ③ 표준유물 관리시스템 입력

유물관리부 등록 담당자들은 현재 2013년 하반기에 입수된 구입유물 621점과 기증유물 215점, 이관 및 수집유물 15점을 등록하고 있다. 3명이라는 제한된 인원으로 여러가지 부족함을 채워나가면서 유물을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에 매진하고 있다.

3 단계 촬영

유물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면 유물 촬영을 진행한다. 유물 촬영은 유물의 상태 기록과 유물의 활용도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다. 규모가 큰 박물관에서는 유물 촬영 담당자가 별도로 인력으로 배치되기도 하지만, 유물관리부에서는

유물등록 담당자들이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촬영된 유물은 디지털 파일로 보관이 되는데 유물 1점당 적게는 2컷, 많게는 6컷에 이르는 파일을 일일이 수정하고, 파일명을 변경하여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①



②

① 유물 촬영 ② 촬영한 유물의 예

4 단계 포장 및 격납

촬영까지 끝나면 드디어 유물은 제자리를 찾아 보관된다. 유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포장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포장은 유물의 유형별로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 지류 유물은 중성지(시간이 지나도 종이가 산화되어 바스라짐이 없도록 제작한 특수용지)를 활용하여 포장하는데, 낱장 지류는 매트를 만들어 포장하며, 서적은 중성

지 상자에 넣어 보관한다. 소형의 도자유물들은 솜포(한지 안에 솜을 채워 넣은 완충제)로 완충하여 유물상자에 넣어 보관한다. 포장재에 다시 한번 번호와 명칭을 기입하고, 포장된 유물을 오동나무로 제작된 수납장에 보관하면 유물등록이 마무리 된다.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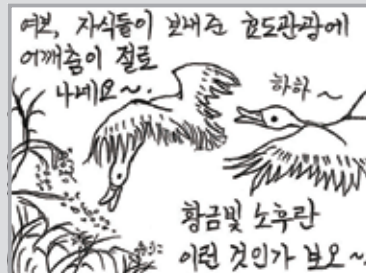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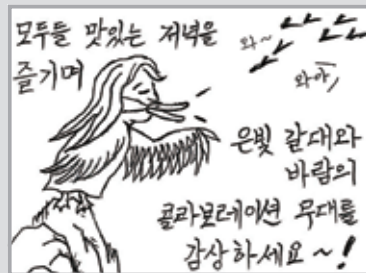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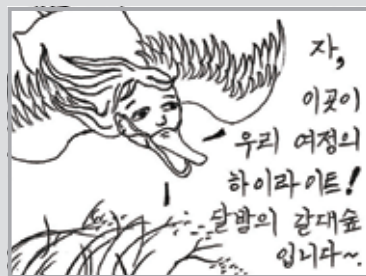
②

①, ② 유물 포장

4Cut Cartoon

야미yami의 생활 속 미술사

전시교육부 조유미



기획특별전 월미도, 기억 너머의 기억

기간 : 4월 30일~7월 30일
장소 : 시립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작은전시 언제가 보았던 날들

주제 : 문학작품과 유물을 통해 본 개항 후 인천항의 이면적 풍경
기간 : 4월 15일~8월 24일
장소 : 시립박물관 2층 작은전시실

상설음악회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주제 : 국악, 클래식, 팝페라, 재즈, 음악극 등 다양한 장르의 상설공연
일시 : 3~11월
매월 둘째주 일요일 16:00~17:00
장소 : 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대상 : 일반시민 200명
신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성인답사 타박타박, 인천

주제 : 학예사와 함께하는 인천의 역사·문화길 탐방
일시 : 5~6월, 9~10월
셋째주 일요일 14:00~17:00
장소 : 남구, 중구, 부평구 일대
대상 : 20세 이상 성인 20명
신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문화가 있는 날 수상한 박물관

주제 :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연계 전시교육
일시 : 9~11월
마지막주 수요일 19:30~20:30
장소 : 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 우현마당
대상 : 일반 및 가족 25명 내외
신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교원연수 선생님을 위한 문화교실

주제 : 인천의 역사·문화 탐구
기간 : 8월 4~8일 30시간
장소 : 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대상 : 인천관내 초·중등 교사 80명
신청 : 인천광역시교육연구원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가족체험 우리 가족 박물관 가는 날

주제 : 아름다운 내 방 꾸미기
일시 : 매월 넷째주 토요일

일시	만들기 주제	비용
7/26	폼클레이 디자인, 미니칠판 꾸미기	재료비 5,000원
8/23	향기로운 우리 집, 젤리 향초 만들기	재료비 6,000원

장소 : 시립박물관 해남이방
대상 : 초등학교 동반 가족 (회당 15팀)
신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가족체험 박장대소, 토요일!

주제 : 전통문양의 비밀(1~3학년)
모여라, 인체니스트!(4~6학년)
일시 : 7월 12일(토) 10:00~12:00, 13:00~15:00
장소 : 시립박물관 해남이방
대상 : 초등학교 포함 가족 2인
신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청소년교육 뮤지엄+드림캐쳐·드림하이

주제 : 박물관 내 다양한 직업군 체험 및 탐색
일시 : 학기중 평일 오후
장소 : 시립박물관 해남이방
대상 : 인천관내 중·고등학교 한 학급 또는 동아리 단체(30명 이내)
신청 : 선착순 전화 신청(440-6749) 후 신청서 공문 접수

청소년교육 상상공작소

주제 : 길과 사람을 통해 살펴보는 인천
일시 : 8월 2~30일, 9월 13일
매주 토요일, 6회, 총 24시간
장소 : 시립박물관 해남이방
대상 : 인천관내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 30명
신청 -기간 : 6월 9일~7월 13일
-방법 : 참가지원서(학부모동의서 포함), 학교추천서 작성 후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어린이 체험 가자! 박물관

주제 : 교육과정 연계 박물관 체험활동
일시 : 7월, 9월 화~금요일 10:00~12:00
장소 : 시립박물관 해남이방
대상 : 인천시내 초등학교 한 학급
신청 :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신청서 팩스 접수

유아체험 꼬꼬마, 가자! 박물관으로

주제 : 교육과정 연계 박물관 체험활동
일시 : 7월, 9월 목요일 10:00~11:00
장소 : 시립박물관 해남이방
대상 : 인천시내 유아단체 회당 40명 이내
신청 : 담당자와 사전협의

컴팩스마트시티

기획특별전 도시 사이 도시를 듣다

주제 :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각자의 음들이 만든 하모니와 리듬, 멜로디로 구성되어 있다. 각 일상이 만든 리듬들을 구현하고 있는 현대미술작품들을 통해 현대 우리 도시의 리듬을 파악하는 전시
작가 : 차기울, 리금홍, 김현연, ETC
기간 : 5월 27일~8월 24일
장소 : 컴팩스마트시티 1층, 2층 기획전시실 및 로비
작품수량 : 설치, 입체, 영상, 평면 등 10점 내외
문의 : 850-6020

기획특별전 인천의 근대 건축 종이모형展

주제 : 인천 개항기에 현존하던 근대건축물 17점을 100% 종이로 재현한 전시로 당시 서구화된 근대 건축양식을 살펴보는 전시
작가 : 문지훈
기간 : 1월 1일~12월 31일 (12개월)
장소 : 컴팩스마트시티 1층 고대 근대 전시관 내
작품수량 : 17점
문의 : 850-6020

성인교육 상반기 인문학특강 '도시 속 디자인'

주제 : 도시 속 디자인
내용 : 국내외 선진도시 디자인트렌드, 빛 디자인, 참여하는 도시디자인, 도시정원예관한 특강

날짜	강사	강의주제
7/3	손영혜 (퍼블릭디자인 혁신센터 연구실장)	도시공원의 진화 '도시정원디자인'

기간 : 6월 12일~7월 3일
매주 목요일 15:00~17:00 (총4회)
장소 : 컴팩스마트시티 3층 영상관
대상 : 일반시민 400명 (회당 100명)
신청 -기간 : 6월 3일~7월 2일
-방법 : 유선 (032-850-6016)
이메일 (cscty@naver.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compactsmartcity)
트위터 (@compact6018)
문의 : 850-6016

가족체험 토요일 영화 감상회

내용 : 영화상영관이 부재한 지역적 상황을 감안한 여컴팩스마트시티 내 상영관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영화 상영과 함께 인천영상위원회 다양성영화 프로그램 일부 상영

월	월	월	상영일자	상영영화
7월	일 또는 해방	7/5	7/5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7/12	7/12	내일을 향해 쏴라
		7/19	7/19	미드나잇 인 파리
		7/26	7/26	토니소토리 : 강릉제국의 비밀
8월	사랑	8/2	8/2	미정
		8/9	8/9	러브어페어
		8/16	8/16	로마의 휴일
		8/23	8/23	새미의 어드벤처2
		8/30	8/30	아름다운 비행
9월	이별	9/6	9/6	미정
		9/13	9/13	애수
		9/20	9/20	냉정과 열정사이
		9/27	9/27	드래곤 길들이기

기간 : 매주 토요일 14:00~
장소 : 컴팩스마트시티 3층 영상관
신청 : 선착순 100명
문의 : 850-6016

분관소식

송암미술관

기획특별전 교과서 속 아름다운 우리 미술

주제 : 초중고 교과서에 실린 아름다운 우리 미술 이야기
기간 : 2014년 7월 22일~2015년 2월
장소 : 송암미술관 2층 기획전시실
문의 : 440-6782

진로체험교육 꿈을 그리는 미술관

주제 : 유물관리, 보존처리, 전시기획과 연계한 학예 연구
사 진로 체험 교육
일시 : 2014년 학기 중 상시
장소 : 송암미술관 강당 및 전시실
대상 : 초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단체 회당 20명 내외
신청 : 사전 전화 협의 후 신청서 팩스 접수
문의 : 440-6782

어린이교육 알송달송! 미술관

주제 : 유물감상법, 십이지, 사군자와 연계한 이론,
전시실 교육 및 체험실습
일시 : 2014년 학기 중 상시
장소 : 송암미술관 강당 및 전시실
대상 : 초등학교 단체 회당 1학급
신청 : 사전 전화 협의 후 신청서 팩스 접수
문의 : 440-6782

검단선사박물관

기획특별전

인천발굴성과전II - 인천, 마한과 만나다

주제 : 1999년 이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인천지역의 발
굴현황을 재조명하면서 선사시대에 이어 최근 10
년 내 이루어진 인천과 김포 등지에서 발견된 (원)
삼국시대 새로운 유적들을 소개
기간 : 7월 17일(목)~11월 16일(일)
장소 : 검단선사박물관 기획전시실
문의 : 440-6790

여름방학교육프로그램

과정명	대상	운영일자	장소	내용
'클레이 아트로 만나는 선사시대'	6세 아동 ~ 초 2학년	8. 6~ 8. 20 (매주 수요일)	1층 상설전시실 2층 아동도서실	클레이아트를 이용한 선사유물 만들기
어린이 발굴체험교실 '고고학 올림픽'	초 3~6학년	8. 1~ 8. 15 (매주 금요일)	2층 발굴체험장	어린이 발굴체험 교육프로그램

가족체험 폴리머 속 달콤한 유물 이야기

주제 : 폴리머 클레이를 이용한 선사시대 유물 쿠키 만들기
일시 : 9월 둘째주 토요일 14:00~16:00
장소 : 검단선사박물관 아동도서실 및 상설전시실
대상 : 6세~초등학생 자녀를 동반한 5가족(20명) 이내
신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참가비 : 무료(재료비 5,000원)
문의 : 440-6790, 6796~7

진로체험교육 박물관과 학예연구사

주제 : 박물관의 정의와 역사 및 학예연구사 직업체험
일시 : 9월 넷째주 금요일 14:00~16:00
장소 : 검단선사박물관 전시실
대상 : 중·고등학생
신청 : 전화 접수
문의 : 440-6796~7

가족답사 떠나요! 고고학 탐험대

주제 : 발굴현장 답사 및 선사박물관 관람을 통해 유물의
발굴부터 수습, 전시과정 이해
일시 : 9월 넷째주 토요일 10:00~16:00
장소 : 검단선사박물관 및 발굴현장(수도권 내)
대상 : 초등~중학생 자녀를 동반한 가족 40명
(15가족 내외)
신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참가비 : 무료(단, 중식 및 필기구 개별지참)
문의 : 440-6790, 6796~7

어린이행사 제5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접수기간 : 9월 1~15일
부문 : 수채, 유채, 콜라주 등 표현방법 자유
대상 : 초등학생 500명
접수 : 박물관 현장접수
시상 : 최우수상(인천광역시장상) 외 다수
참가비 : 무료(단, 도화지를 제외한 그림 재료 개별 준비)
심사 : 9월 22일
발표 : 9월 23일 (예정)
시상식 : 10월 중
문의 : 440-6790, 6796~7

한국이민사박물관

기획특별전 노령이주 150주년 특별전

주제 : 황무지에서 지켜낸 민족혼
기간 : 9월 2일~12월 30일
장소 : 한국이민사박물관 기획전시실 및 강당

교육연수 교원연수교육(직무연수 2학점)

주제 : 한민 해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특징
- 인천의 정체성을 알자
기간 : 8월 4~8일
장소 : 한국이민사박물관 강당
대상 : 인천관내 중·고등 교사 30명
신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참가비 : 무료
문의 : 440-4708

청소년답사 청소년 역사기행

주제 : 무한답사, 포와(하와이)가는 길
기간 : 9월 20일, 9월 27일
장소 : 중구 개항장 일대(축현역터 - 내리교회 -
동서개발 - 감리서 - 데실러 사택 - 대불호텔 -
우선회사 - 해관 - 잔교 - 본 박물관 전시관람)
대상 : 중·고교생 선착순 30명
참가비 : 무료
신청 : 홈페이지 접수
문의 : 440-4708

문화가 있는 날 교육강연

주제 : 미주 하와이 이민의 역사와 특징
일시 : 9월 24일(수) 18:30~20:00
장소 : 한국이민사박물관 영상실
대상 : 일반시민

※ 인천 송도신도시에 위치한 컴팩스마르티스는
2009년 8월 5일에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
획을 테마로 한 전시공간입니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하던
것을 2014년 1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노안도(蘆雁圖)〉

글·이현아(송암미술관)

소장유물

1920년대 중반 이전, 344×125cm, 송암미술관 소장

이 작품은 갈대숲을 향해서 날아드는 한 무리의 기러기를 표현한 노안도(蘆雁圖) 가운데 군안도(群雁圖)에 속한다. 화면 하단에는 가운데 위치한 바위를 중심으로 개울이 굽이쳐 흐르고 주변에는 갈대들이 군락을 이루어 자라있으며, 상단에는 기러기들이 한 곳을 향해 날아오면서 목을 길게 빼고 하강을 준비하는 모습을 그렸다. 전체적으로 담채를 사용하여 채색을 절제하면서도 화면 왼쪽 아래 갈대밭 속의 꽃들은 연보라색으로 선명하게 채색되어 있어 마치 이 꽃의 향기가 기러기를 한 곳으로 불러 모으는 듯한 서정성이 느껴지는 그림이다. 또한 가장 왼쪽에 위치한 기러기 위로 보름달이 담채로 표현되어 있어 한가로운 초저녁 개울가의 모습을 더욱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기러기들은

화면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날아오는 구도로 그려졌는데 멀리 있는 기러기일수록 작게 묘사하고 있어, 원경으로 갈수록 담묵으로 표현된 갈대와 함께 깊은 공간감과 원근감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멀리서 날아오는 기러기는 같은 방향으로 배치한 반면 화면 가까에서 곧 땅에 내려앉을 기러기들은 다양한 방향과 자세로 그려넣어 화면에 변화를 더해주고 있다.

노안도는 가을 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하며, ‘老安’과 음이 같아 노년의 평안을 바라는 길상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다. 장승업(張承業)과 양기훈(楊基薰)에 의해 조선말기부터 하나의 유행하는 주제로 자주 그려졌으며, 뒤이어 안중식(安中植), 조석진(趙錫晉) 등 근대기 서화가들까지 이르는 흐름

안에서 이 작품 역시 제작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골법으로 그려진 기러기와 갈대는 이러한 전통적 노안도 화풍을 따르는 것이다.

이 작품은 유년시절부터 그림에 뛰어난 소질을 보여 1911년 9세의 나이로 경성서화미술원에 1기생으로 입학하여 조석진과 안중식으로부터 전통화법을 배운 이용우(李用雨, 1902~1952)의 작품이다.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춘전(春田)이라는 호는 잘 알려진 호인 묵로(墨鷺)를 사용하기 이전의 호로 1920년대 중반 이전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작품 또한 그의 나이 20대 중반에 그려진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큰 화면에 능숙한 구도와 필법으로 갈대와 기러기를 대담하게 그려넣은 수작이다.